

청소년이 즐겁게 배우는 마음건강, ‘정신건강 골든벨’ 운영

- 국립공주병원, 충남·충북 지역 중학교 대상 퀴즈 프로그램 운영해 올바른 정신건강 인식 형성 및 마음건강 돌아보기 기회 제공 -
- 병원·교육지원청·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안전 체계 강화 -

국립공주병원(원장 최종혁)은 정신건강의 날(10월 10일)을 기념해 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퀴즈 프로그램 「정신건강 골든벨을 울려라」를 10월 13일(화)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지역 내 중학교에서 세 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자 응답기(스마트 리모컨)를 활용해 퀴즈에 직접 참여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, 감정 이해와 표현, 생명존중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정신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.

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건강을 돌아보고,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.

행사는 국립공주병원을 중심으로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,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,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교와 연계해 진행한다.

행사 일정은 ▲10월 13일 충남 공주시 유구중학교·봉황중학교, ▲10월 14일 충북 음성여자중학교, ▲11월 6일 충북 옥천여자중학교 순으로 진행된다.

국립공주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, 교육기관 등 지역기관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. 각 기관은 지역의 교육·정신건강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정신건강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.

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최종혁 국립공주병원장은 “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”라며, “학생들이 퀴즈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생명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이어 “앞으로도 국립공주병원은 교육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2026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‘마음건강 골든벨을 울려라’ 개요
2. 국립공주병원 개요

담당 부서	국립공주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	책임자	의료부장	이제정 (041-850-5800)
		담당자	주무관	이재현 (041-850-5877)

1 개요

- (목적) 정신건강의 날(10월10일) 및 정신건강 홍보주간(10월10일-10월 24일)을 맞아 아동·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퀴즈형 콘텐츠를 통한 정신건강 관심·이해도 제고 및 마음건강 증진
- (목표) 「마음건강 골든벨을 올려라」 참여 아동·청소년 800명

2 주요내용

- (협업) ① 국립공주병원-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-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
② 국립공주병원-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
③ 국립공주병원-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
- (일정) 1차 2026. 10. 13.(화) 08:30-17:30
2차 2026. 10. 14.(수) 12:15-14:50
3차 2026. 11. 06.(금) 13:20-15:00
- (세부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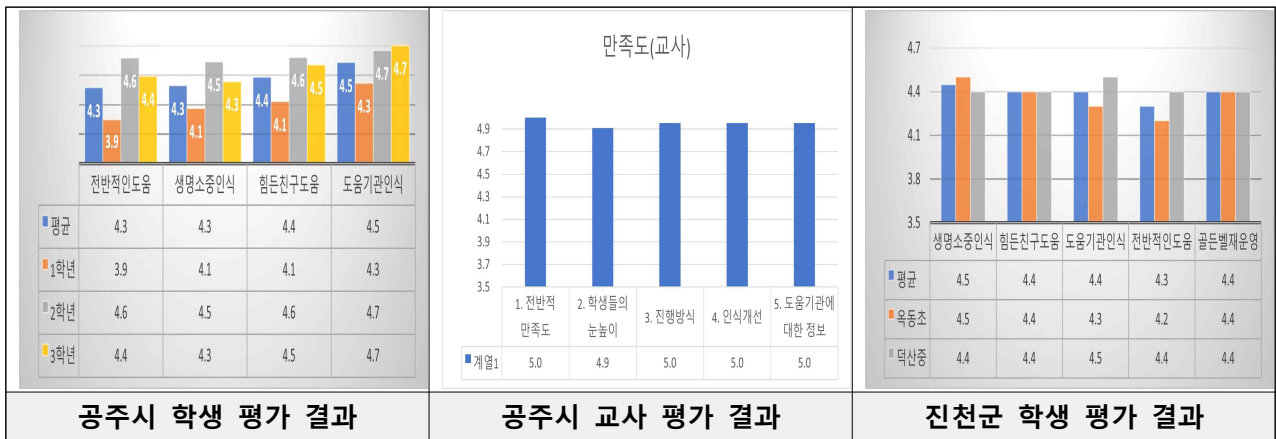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비고
강사 소개	- 강사 및 프로그램 소개	
참여 프로그램	- 스마트리모컨 기본 사용법 숙지 - 정신건강 도전 골든벨 - 예선 O, X 문제 풀기 (전체) - 본선 문제 풀기 - 패자부활전 진행(집중 유도를 위한 수시진행) - 명예의 전당 문제 풀기(3명)	(퀴즈 내용)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구성
수상·기념촬영	- 최후의 1인 수상 및 기념촬영(1명)	
마무리	- 학생 및 교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	

3 기대효과

- (정신건강 인식개선) 대상자 맞춤형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로 교육의 효과성 제고
- (정책실행력 확대)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협업체계 구조화 및 시너지 제고

4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결과(참고)

- (주요실적) 4개 초·중학교 참여(1,157명)
- 전반적 도움 정도: 4.3점(5점 만점)
- 생명존중 인식 개선 도움 정도: 4.4점(5점 만점)



○ (행사사진)



□ **일반현황**

- (설립) 1998년 국립정신병원으로 개원
 - * 수도권(국립정신건강센터), 호남권(국립나주), 경상권(국립부곡), 강원권(국립춘천)
- (인력) 의사, 간호사, 약사, 의료기술, 보건·행정 등 **180명**(전 직원)
- (예산) 2026년 **202억 원**(인건비 및 사업비)

□ **주요 기능 : 중부권(대전·세종·충청권) 정신건강 거점 공공 정신의료기관**

- 정신질환 필수의료 충청권 선도 (급성기 치료 및 회복·재활)
 - * (치료) 고위험군 소아청소년(연간 16백 명 외래진료) 및 성인 조기치료(연간 77명 정신응급입원, 평균 입원일수 37일로 국내 평균(186일) 대비 80% 단축·조기치료)
 - *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(초기상담→생활훈련·가족교육→지역자원 연계)
 - * 국가 시범사업 참여 :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 및 사례관리 기관 지정('25년~'27년)
- 정신건강복지법의 필수사업 충청권 역량강화 (예방 및 인력양성)
 - * (트라우마센터 운영) 법 제15조의 2 근거(심리지원 연간 15백 건, 85개 기관 훈련 30회)
 - * (입원적합성심사) 법 제43조·제46조(연간 23백 건 적합성 심사, 연간 추가진단 11백 건)
 - * (전문인력 양성) 법 제17조·70조(전문요원 수련 33명, 충청권 종사자 교육·소진예방 25백 명)

□ **병원시설**

* 토지 : 131,939m²
(약 39천 평)

* 건물 : 19,995m²
(약 6천 평)
(본관 14,303m² 및
부속건물 5,652m²)

